

# “머지않은 환경재앙, 생활 속 실천만이 해답”

###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환경실천 신문 제작 무료 배포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폭증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다룬 신문을 제작 배포했다.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은 7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회용품 증가와 배달포장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급증에 주목해 8페이지 분량의 '환경실천 신문' 3000부를 제작했다. 제작된 신문 중 2000부는 광주 지역 일간지 구독세대 일부에 무료 배포했다.

신문에는 '쓰레기 몸살 앓는 광주...하루 1130톤 쏟아진다', '인구 많은 북구 하루 362톤 최고', '버려도 너무 버린다. 전국 곳곳 쓰레기산 400개' 등 생활쓰레기 배출증가 문제를 다룬 기사들이 실렸다.

또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이 분리배출해도 제대로 재활용 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주로 매립에 의존하는 쓰레기 처리방식 때문에 2년 후 광주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데 문제 등을 취재했다.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최근 제작한 '환경실천 신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호남대 제공>

나주와 영광에서 벌어진 SRF(고형폐기물연료) 갈등문제의 원인을 다룬 기사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광주시 광산구 환경미화원의 하루를 동행취재한 기사도 실었다.

3학년 박민주 양은 학생기자 칼럼에서 “취재를 하면서 할수록 환경재앙이 머지않았다는데 공포가 느껴졌다”며 “생활속 친환경 실천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동강대 BI센터, 입주 창업기업 판로 개척 등 지원



<동강대 제공>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가 광주-전남지역 창업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자금 확보를 도우며 업체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강대 BI센터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글로벌 R&D센터에서 '2021년 BI 보육역량강화 화사업'으로 '제5회 입주기업 투자 IR(Investor Relations) Day'를 개최했다.

동강대는 지난 2017년부터 BI센터 입주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IR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강대 BI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BI보육역량강화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원 대상을 광주대, 남부대, 동신대, 호남대 등 4개 대학 BI센터 입주기업까지 확대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1전비 봉사동아리 '사랑나무', 곡성군에 마스크 1500장 기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 항공 정비전대 봉사동호회 '사랑나무'가 최근 곡성군에 KF-94 마스크 1500장을 기부했다.

동호회 소속 간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봉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기부했다.

사랑나무 동호회는 지난 2015년부터 곡성군과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매년 8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도 KF-94 마스크 1000장을 기부했다.

허원진 중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연



<1전비 제공>

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계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공군 핵심가치인 '헌신 실천에 앞장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코디언 전설' 심성락 씨 별세



'한국 아코디언의 전설' 연주자 심성락씨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중 건강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등록된 연주곡이 7000여 곡, 참여 음반은 1000여 장에 이르는 아코디언 연주자이자 작곡가-전자오르간 연주자다.

고인은 부산 경남고 1학년때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아코디언을 잡았으며, 1965년 당시 지구레코드 사장 을 만나 작곡을 시작했다. 1970년대 초반 이봉조의 소개로 김종필 총리의 전자오르간 교습 선생이 됐다. 특히 전문적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간에서는 '천재 연주자'로 불리곤 했다.

연합뉴스

## 스킨온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스킨온도(대표원장 박세희)가 최근 소외 계층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 '2021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2021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소외계층 아동에게 소원(자립 및 선물), 성탄 파티,

연탄·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박세희 스킨온도 대표원장은 “오픈 후 현재까지 많은 고객님들이 다녀가시면서 받은 사랑과 격려에 보답하고자 후원을 하게 됐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선한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푸리키 식사교실(재)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50 불편해도 괜찮아 시즌2 55 UHD 송터	00 학교 2021(재)	15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 45 주리킴지3	00 애니갤러리 30 스페이스 동이의보감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웃소매 붉은 끝동(재)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1	00 아마도 마지막 존재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5 책, 기록속 스페셜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100회 특집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20 어린이 동물티비 50 100회 특집 열린채널 55 불편해도 괜찮아 시즌2(재)	00 KBS 뉴스타임 10 마카엔로니(재) 30 TV 유치원	20 뽀빠뽀빠 좋아 좋아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엘리가 간다(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펫츠 고릴라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내고향 전파(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티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학교 2021	0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갓파더	30 라디오스타	40 백종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프 50 통합뉴스룸 ET(재)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심상! 고향별곡(재)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사어 울리와 율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활속 워터지 해결단
07:00 코요태	12:10 극한직업	19:05 미스터 마구
07:15 출동! 슈퍼웍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크프라임	19:50 문해력 유치원
07:45 최고의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식 e	<방랑의 길 노마드 -낯선 그곳, 추억의 풍경>
08:30 안락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마사와 곰	<우리, 이사 왔어요 3부 그대도 우리 좋아>
09:00 시몽	16:1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21:50 EBS 다크프라임
09:15 봉우야 말해줘3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3:05 바닷가 사람들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 11월 5일 庚寅) ☎ 010-9790-8237

<p>36년생 절대로 대중 남길 문제가 아니니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48년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60년생 좋은 인연과의 혼란한 일이 있을 것이다. 72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84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나. 96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4, 52</p>	<p>42년생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54년생 조용한 호수에 파문을 던지는 이가 보인다. 66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8년생 당분간 말없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02년생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상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0, 87</p>
<p>37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49년생 고만하더라도 꼭 참고 한결같이 진행해 나가다 보면 행운이 따른다. 61년생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잘 살펴봐라. 74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85년생 다방면으로 고무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97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할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35, 59</p>	<p>43년생 소신껏 진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55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67년생 완벽하게 대비 했을 때는 피할 수도 있다. 79년생 가벼운 현상이 불과하다. 그다지 의식할 필요는 없다. 91년생 기교를 부리지 말고 본래대로 행하라. 03년생 너무 왕성하면 머지않아 쇠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51</p>
<p>38년생 똑 같이 인식 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나. 50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62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라. 74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행사를 비켜갈 수 있다. 86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 98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49, 81</p>	<p>32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 44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56년생 과실이 줄렁줄렁 열려 있으니 풍요로울 것이다. 68년생 뜻밖의 만행이 있는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80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다. 92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염을 꼭 다물어라. 행운의 숫자 : 45, 70</p>
<p>39년생 준비 되지 않았다면 보류하는 것도 괜찮다. 51년생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니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63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5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 될 것이다. 87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만 하느니라. 99년생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동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95</p>	<p>33년생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45년생 대세에 따르면 잘 주체해도 판단할 일이다. 57년생 세용치마의 이치이니 차라리 더 나은 수도 있다. 69년생 가장 견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81년생 초지일관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93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10, 93</p>
<p>40년생 뜻 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52년생 밀려오는 현상들은 지경을 좌우하지 못 하리라. 64년생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것이 때맞추어 생긴다. 76년생 중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88년생 오늘날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00년생 파격적인 국제사이다. 행운의 숫자 : 47, 83</p>	<p>34년생 회구한다면 용기를 갖고 임해야 한다. 46년생 조용히 추진력이 안정성에 의존할 것이다. 58년생 기능성은 능후하니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70년생 순종의 해후에 항해하고는 있으나 해저의 암초도 잘 살펴봐라. 82년생 구체적이지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94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24, 58</p>
<p>41년생 인과응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53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65년생 타협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77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89년생 힘들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라. 01년생 긴요한 불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3, 66</p>	<p>35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47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59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률적이다. 71년생 오랜 세월 속의 열정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겠다. 83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95년생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32, 97</p>